

尹·기사다, 盧·고이즈미의 실패를 넘어서라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15대 심수관을 고이즈미와 함께 만나 양국 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사 진을 남겼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는 집권 초기의 노무현 한일 관계에 비견할 수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양국 관계를 숨 막히게 했던 징용 문제 에 대해 한국이 우선 배상, 단칼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에 과거사 관련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도요를 방문, 20년 전의 노무현처럼 일본 지식인 사회를 감동시켰다. 7일 기사다 일본 총리가 답답하자 “과거사

2000년대 한일 셔틀 외교 실패 교훈 언어 ‘플랜 B’ 만들어야 CVID 방식의 과거사 해결하며 노벨 평화상에도 도전해보라

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문제는 노무현·고이즈미 관계가 영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의 관계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틀 어져 버렸다. 노무현은 2005년 원고지 30매 분량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양국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대립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역사 왜곡의)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분노했다. 그것으로 두

정상 관계는 끝이었다. 그 이후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충돌 위기를 거치며 약화되어왔다.
지난 1년간 신뢰를 쌓아온 윤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는 웃으며 출발했던 노무현·고이즈미 관계가 비극으로 끝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일본이 과거처럼 또다시 갈등을 야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플랜 B’ 시나리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체계는 양국 관계가 전환되는 일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라고도 했다. CIA 국장을 지냈고 차기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의 발언은 과장이 아니다. 한일의 화해와 항구적인 협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 방법으로 ‘완전히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제’를 의미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자주 쓰여왔다. 윤석열·기사다 커플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CVID 방식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확고히 닦으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 명단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2004년 7월 제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장. 나란히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정장 대신 밝은색 콤포비틀 입고 있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장관급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자신의 입기 내에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공식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과거사)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는 제 입기 동안엔 제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03년 일본 국민(國賓) 방문 때 “모든 문제를 다 후회하는 것이 후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었다.

2004년 제주 회담 당시의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을 때였다. 노무현은 회담 중에 이 드라마가 화제에 오르자 고이즈미에게 “오늘 우리 둘이서 ‘겨울연가’ 한번 짝어 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노무현은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의 온천을 셔틀 외교차 방문했다. 그는 “한국은 아버지,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말하는 도공

김준의 맛과 섬 [137]

안산 풍도 밥상

섬마을 봄꽃들이 스러지고 여름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원추리도 그중 하나다. 꽃이 피기 전에는 나물로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처음 원추리나물을 먹었던 곳이 섬마을 풍도다. 4월이면 야생화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이다. 풍도를 일컬어 야생화의 천국이라 부른다. 풍도의 위치는 충남 당진시에 가깝지만 경기 안산시에 속한다.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봄철에 성지 순례하듯 찾지만 철이 지나면 교통이 불편해 오지나 다름없는 섬이다.

어느 해인가, 철 지나 찾았더니 주민들이 꽃이 모두 졌다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그때 민박집에서 받은 밥상에 원추리나물이 올라왔다. 봄이면 복수초, 노루귀, 풍도바람꽃, 풍도대극 등 야생화가마을 뒤 산자락에 지천이다. 더

불어 두름이며 전호나물 등 산나물도 많다. 풍도는 산나물 명소이기도 했다. 섬 주변 바다에는 우럭, 농어, 놀래미, 갯자미가 많이 잡힌다. 하지만 주민들이 고향이라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은 적다. 섬은 경기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 한양으로 공물을 가져가는 조운로였고, 구한말에는 이양선이 출몰하기도 했다. 그래서 바람 잘 날 없었다. 일본이 청일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곳도 풍도 바다였다. 6·25전쟁 당시 인 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유엔군이 들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20여 년 전까지 풍도 주민들은 인근 무인도인 도리도에서 봄에는 바지락, 겨울에는 굴을 채취하며 생활했다. 특히 바지락 철이 되면 주민들은 물론 학교와 교회와 경찰 초소까지 도리도



로 이주했다. 식수도 부족한 곳으로의 이주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갯벌 농사가 일 년 농사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리도마저 가까운 화성시로 편입되고 말았다. 그 후 풍도의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기도 했다.

풍도 섬밥상에는 원추리나물 외에 두릅과 전호나물 등 산나물이 올라왔다. 한때 풍도의 상징이었던 바지락은 없다. 그나마 꽃게장과 특별 주문한 회가 없었다면 비린내도 구경하지 못할 뻔했다. 주인은 “섬이라도 산중 해변이 예요”라며 가져온 회를 내놓았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社 說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대통령실은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노동 개혁, 탈원전 폐기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이완된 한미 동맹을 재건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핵 역제력을 보다 실질화했다. 막혀 있던 대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도 정상화시켰다. 거대 귀족 노조의 폭력과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도 과거 정부는 못 한 일이다. 탈원전 폐기도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취임 때 약속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첫발도 못 뒀다. 경제 활성화나 민생 개선에서도 크게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권을 독점한 민주당 탓이 큰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갈라치기 입법에 몰두하면서 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44건 중 36건만 처리했다. 나랏빚을 400조 원 넘게 늘려놓은 사람들이 재정준칙도 못 만들게 했다.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가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50% 넘는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1년 만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킨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1·2심 유죄라도 공천, 이재명 1인용 공천 틀 만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유승준 전, 가경 폭력, 아동 학대 전력과 투 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심사 기준을 높였고 학교 폭력, 파렴치·민생 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 때 10% 감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도덕성 강화’란 말이 무색하다. 민주당이 4년 전 만든 21대 총선 공천 틀엔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 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11조 3항)이 있었다. 이번 공천 틀에선 이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공천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선거법 재판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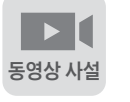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검찰 편 중 인사가 문제 지적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 반도체 세액공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장관이 다른 말을 했다. 대통령실의 여당 내부 정치 개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와 ‘내부 총질’ 갈등이 벌어졌고, 대선 단일화 파트너 안철수 의원을 “국정 운영의 적”으로 규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북핵 위협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역대 최악의 등 경제 악재도 산적해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보다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가 어렵다면 여당 내 비주류부터 만나야 한다.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과 참모진 개편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이 국민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적이다.

민주당의 최근 1년은 모든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는 작년 대선에서 지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그러자마자 당 대표에 올라 총선 공천권까지 확보했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이 대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쳤다. 이 대표가 당선된 뒤 당헌을 고치면 민망하니 이전에 비대위가 총대를 멘 것이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헌도, 공천 규칙도 다 고친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8개월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통과시켰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는 소급입법, 이 대표 사건 검사와 판사를 ‘범외공직’로 처벌할 수 있는 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정당에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공천 틀 변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박원순 미화 다규까지, 습관이 된 영화 이용 흑백 뒤집기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다규멘터리가 7월 개봉된다고 한다. 제작진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러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은 다규에서 성폭력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피해자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러난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2차 가해를 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박 전 시장 유족이 낸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은 불리한 내용은 빼고 그를 미화하는 영상과 인터뷰로 국가 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천아년 전영은 그동안 자기편 잘못은 숨기고 행적은 미화하는 다규·영화로 끊임없이 문화적 분석(粉飾)을 시도해 왔다. 2017년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대신 감정적 음악 과 영상으로 노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 2022년 영화 ‘그대가 조

국’은 조국 전 장관 아내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 확정 선고를 받았지만 그를 희생자로 포장했다. 다규 ‘문제인입니다’는 측근들 입을 빌려 ‘경청과 인내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으로 미화하면서 재임 중 실정(失政)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상대편에 대한 사실은 왜곡하고 비하하고 악마화했다. 좌파 진영은 2012년 ‘백년 전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하와이안 갱스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뱀 같은 인간’이라 폄하했다. 이전 대통령이 미국서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지만 합성한 사진으로 만든 완전 거짓이었다.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은 미국의 원조 덕분이었다는 역시 주장도 폄했다.
좌파 진영이 이런 문화 분석을 시도하는 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비를 후원하고 영화 관람까지 해주니 자기를 입맛대로 다규를 만들 수 있다. 다규가 역사적 진실을 담고 사실관계에 충실하다면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팬덤에 기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편 만 미화한다면 다규가 아니라 흑색무민이다.



대통령과 따로 노는 국힘... 자유 위해 싸우는가, 자리 위해 싸우는가?

뉴데일리 newdaily.co.kr

1. 주적이 누구지 모른다 ⇒ 주적은 [주사파 + 내부 총질 기회주의]
2. 적의 취약점 역으로 활용할 줄 모른다 ⇒ 오로지 금배지 유지에만 혈안

■ 대통령 따로, 국힘 따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가 45.5%, 국민의힘 지지가 34.9%라 한다. 민주당은 그래도 죽어라도 쏘는데, 국민의힘은 아예 동냥 쪽박까지 깨는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대적 과제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전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따로, 국민의힘 따로다.
왜 이렇게 됐나? 국민의힘이 두 가지 혼매(昏昧)에 빠져있는 탓이다.

(1) 국민의힘은 주적이 누구인지 모른다.

국민의힘의 주적은 [주사파 + 내부 총질 기회주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껏 김재원·태영호 같은 별것도 아닌 상대를 두고, 주먹질발길질 총검술 다 써가며 난리법석이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들 표현이 다소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 한 개 아닌 것도 있다. 그런데 출당이니 증정계니 하는 건 그들의 지역구가 탐나서인가? 아니면 일부 미디어의 주문에 휘둘리는 정체성 부재 탓인가?

■ 국힘, 온몸 던져 싸운 적 한 번도 없다

국민의힘이 언제 한 번 △'남북 주사파'의 남조선 혁명 △중국공산당의 디지털 권위주의와 맞붙어 혼신의 가치 투쟁과 힘의 투쟁을 한 적 있나? 없다.
국민의힘이 언제 한번 △자유 의 사상 △자유 의 역사관 △자유 의 국가전략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정립하고 실행하며 온몸을 던져 싸운 적 있나? 없다.
이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진짜 주적 [시진핑 + 푸틴 + 북한 + 주사파]를 제쳐둔 채, [재야 강성 우파 + 박근혜 탄핵 반대파]를 주적으로 친다. 이들이 치고 들어오면, 자기들 탄핵파의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과민증이다.

(2) 국민의힘은 적의 취약점을 역으로 활용할 줄도 모른다.

정치 게임에서 가장 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보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득 보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엄청난 데 맞친 격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송영길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스캔들 등등.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득 본 건 하나도 없다. 왜?

■ “나만 금배지 달면 그만”

국민의힘 정치꾼들이 진짜 정치, 대한민국의 주적을 분쇄하는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야당 되어도 좋으니 나만 금배지 달면 그만’이라는 알팍한 정치에만 혼신 젖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하느라 워싱턴으로, 도쿄로, 히로시마로 동분서주하는 데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차기 공천에서 어떻게 경쟁자를 죽이고 살아남는가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느라 주적과 싸우는 데엔 무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맹물 국민의힘 그대로는 거의 확실하게 실패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간파했으면 한다. 이미 좀 늦었는지도 모른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합령으로 5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